

퀘이커리즘과 평화운동

정 지 석(목사, 철원 국경선평화학교 대표)

농민 영성, 퀘이커리즘

퀘이커리즘과 농민영성, 평화운동은 서로 깊은 친근성이 있다. 초기 퀘이커 운동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다. 초기 퀘이커들은 퀘이커리즘은 ‘씨’(seed), ‘내면의 빛’(inner light), ‘안에 계신 그리스도’(Christ within)를 추구하고, 제도와 형식같은 외적인 면보다는, 직접 체험을 더 존중한다. 예수운동도 도시 예루살렘보다는 농촌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 고난과 하늘의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 농촌이다. 농민영성은 십자가의 생명 영성이다.

초기 퀘이커리즘은 예수의 십자가 생명 영성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운동이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많이 일어났다. 주일 예배는 교회당에서가 아니라 농촌의 허름한 창고에서 모였다. 높은 침탑과 요란한 장식으로 꾸며지지 않고 단순한 예배란 점에서도 농민들과 어울렸다. 설교 강단도 없고 성찬대도 없고 장엄한 예식도 없었다. 그저 둥그렇게 모여앉아 침묵했다. 침묵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으로부터 듣는 체험이었다.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은 몸을 부르르

떨곤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떠는 자들-퀘이커’(Quaker)이다. 초기 퀘이커리즘은 예수운동의 원초적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으로써, 뿌리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 씨앗의 생명력을 체험으로 추구하는 신앙운동인 퀘이커리즘은 농민과 체질적으로 잘 어울리는 종교개혁 신앙이었다. 퀘이커 평화신앙의 핵심은 생명존중 정신이다. 이 정신 또한 농민의 생명존중 정신과 잘 어울린다.

퀘이커들은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친구’(friends)라 부른다. 모든 사람은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퀘이커 신앙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만인 평등 정신과 사람을 폭력으로 해할 수 없는 평화 영성의 기초이다. 단순함, 생명의 씨앗 신앙, 만인 평등정신, 평화의 영성은 농민 영성과 잘 어울린다.

퀘이커리즘이 명칭도 이상해서 뭔가 이상한 사이비 종파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믿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 실천의 전통이자 한 모습이다. 나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앙 전통과 행동양식에 익숙하며, 종종 장로교만이 정통 신앙이며 모범적인 교회 제도라고 부지불식간에 믿고, 다른 교단 교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먼 것이고, 오직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망 속에 살기를 기도했다. 생명과 평화의 영성, 퀘이커리즘을 만나고 나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다. 철원에서 인생 후반기 삶의 시작이 그것이다.

철원에서 실천하는 평화운동 - 국경선평화학교 운동

퀘이커리즘은 신앙과 실천의 일치됨을 추구한다. 퀘이커리즘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라면 ‘신앙과 실천의 일치’를 추구하는 영성이라고 대답한다. 퀘이커리즘은 진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실천을 통해 그 진리성을

증거하고 입증한다. 그러므로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진리가 아니다. 초기 웨이커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진리임을 증거했다. 지금도 웨이커리즘은 이 신앙 실천의 일치를 핵심으로 삼는다. 웨이커들은 실천없는 믿음을 미신이라고 간주하며, 실천하지 못할 진리는 믿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믿음과 실천의 일치를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실상 믿음의 실천,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은 말처럼 잘 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은 현실 조건과 적절한 타협을 잘 하면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통용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대로 다 실천하며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만한 것이다,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등등 신앙과 실천에서 적절한 중도 타협을 잘 하면서 사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이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어려운 이웃 구제하는 봉사활동 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세상을 누룩처럼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과는 동떨어진 일이 되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망각의 언어가 되었다.

그런데 웨이커리즘은 그렇지 않았다. 신앙과 실천은 개인적인 생활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펼쳐졌다. 평화와 사회정의, 평등과 차별철폐, 인권과 구호 운동 등 이 세계에서 억압과 빈곤과 차별, 재난 등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웨이커들은 열심히 일하고 실천한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믿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 등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회와 세계의 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실천의 일치, 믿는 바를 반드시 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웨이커리즘으로부터 나는 큰 충격

과 도전을 받았다. 마치 당연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살아 온 사람이 굳어진 신앙양심의 찢림을 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신앙의 각성이 나를 철원으로 이끌었다. 믿음으로 살자, 믿으면 크든 작든지 실천하자. 내가 생을 바쳐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리고 얻은 길이 철원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피스메이커를 양성하는 국경선평화학교(Border Peace School: BPS) 운동이다. 철원은 농촌이며 한반도 분단의 최전방 마을이다. 산골 강원도의 유일한 평야지역으로서 쌀이 많이 생산되며 다양한 농작물과 가축이 길러진다. 나는 철원에 와서 강원도가 남북 강원도로 분단되었고, 철원이 남북 철원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반도가 분단되었다는 말이 철원 마을에 오니 실감난다. 비무장지대 너머 북한 땅이 눈앞에 보이고, 민통선 안에 있는 농토에 드나들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가 내려다 보이는 소이산에 오르면 북쪽 평강고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남북한 분단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이곳에 들어 온 후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평화통일의 날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국경선평화학교는 온 생을 바쳐서 평화통일 운동을 할 사람, 즉 피스메이커 (Peacemakers)를 양육하는 학교인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렸던 현명한 다섯 처녀들처럼, 남북평화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 화해와 치유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준비된 피스메이커를 양육하는 학교이다. 철원에 와서 개척한 교회, 평화의 씨앗들-철원교회는 분단 70년이 되는 이번 해를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실천한다. 금년 목표는 인터치 -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소서, 교회와 학교의 터전을 마련코자 하오니 인도하소서, 70년 분단병에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소서, 기도를 하고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의 금년 한 해 지침이 되는 말씀이다.

평화교회 전통(Peace Church Tradition)

1998년 봄,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평화 에큐메니칼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나는 평화교회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신학을 한다는 한신 신학대학원에서도 들은 적이 없었다. 평화주의 신앙을 교회의 신조로 지켜오는 교회가 있으며, 단순히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현실 삶 속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교회들이 있는데, 역사적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es: HPC)가 바로 그들이다.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메노나이트, 브레드린, 웨이커를 역사적 평화교회라고 부른다. 기독교학생 운동 시절 본회퍼, 재세레파 토마스 뮌쩌에 대해서 읽고 배웠는데, 평화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평화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평화교회 신앙 전통이 우리 한반도 분단 현실에서 한국 교회에게 매우 유용한 것임을 깨달았다.

돌아보면, 나 개인적으로 평화교회와의 사연이 있다. 웨이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 전 기억 속에 묻혀있던 경험이 떠올랐다. 웨이커,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나는 그 이름을 좋지 않은 사교 집단으로 배웠다. 그들은 군대 가기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종교 집단이었다.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우리에게 그들 교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엄한 경계령을 내렸다. 나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그런 종교는 흑세무민하는 참 나쁜 종교라고 믿었다. 남북한이 맞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힘이 없어 일본에서 식민지 종살이를 한 쓰라린 과거를 잘 알고 있기에, 나는 오직 부국강병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커는 이름도 이상하지만,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종교라는 인식이 망각 중에도 마음 깊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잊혀졌던 이름을 성인 목사가 되면 타국 아일랜드에서 다시 듣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왜 군대를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었다.

사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폭력이나 전쟁, 군대나 독재 권력과 어울리는 앓는 분이라는 믿음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현실 사회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서 믿지는 못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야겠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외치면서 학생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믿음으로 넓혀진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있는 한,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하고 그런 점에서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국가 안보 의식 또한 투철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를 위한 학생운동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하면서도, 평화의 중심적인 문제인 국가 간의 갈등 문제에서는 거의 맹목적인 정도로 부국강병을 신봉했다.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져야 평화는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이 투철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평화 건설 방식도 그런 것일까? 평화의 왕 예수님은 평화 건설을 위해 강한 군대를 육성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마음의 평화만 관심하셨는가? 한반도 분단 극복의 평화 통일같은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평화와 관계된 것이니까 예수님 믿는 일과는 관계없는 것인가?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고 군사력과 경제력만 강하다고 평화는 실현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세상의 평화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다.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의 믿음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평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신앙의 문제로도 여기지 않았다. 독재와의 투쟁에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싸워야 하는가의 문제를 토론할 때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방법은 비폭력이란 믿음은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부국강병론의 소신을 품고

있는 어찌 보면 정리되지 않은 평화관을 갖고 있던 때였다. 고등학교 시절 좋지 않은 종교로 기억하는 웨이커의 이름을 다시 들으면서 나는 그들이 왜 군대를 거부하는지 그 신앙적 이유를 알게 되었다.

평화교회는 평화주의 신앙을 신봉한다. 평화주의(Pacifism) 신앙은 어떤 이유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거부하고 폭력적 방법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예수의 십자가 정신은 폭력 사용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특히 “악에 맞서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화주의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을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따르느냐에 달린 것이라 믿었다. 비록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평화주의 신앙은 소수자의 입장으로 이어져 왔다. 대다수 기독교회들은 정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경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정당한 전쟁론을 윤리적 원칙으로 삼아왔다. 반면에 종교 개혁기에 제세레파들과 웨이커들은 평화주의 신앙을 지키고, 그 후에도 꾸준히 전쟁과 폭력 갈등의 역사 상황 속에서 평화주의 신앙을 지켜 옴으로써, 20세기 들어와 역사적 평화교회라는 이름을 얻었다. 핵무기와 최첨단 대량살상 무기들이 발전한 오늘날, 정당한 전쟁론은 차츰 윤리적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평화주의 신앙 전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주류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웨이커 평화운동의 오늘과 내일

웨이커리즘은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으로 증거하려고 하며, 성패와 관계없이, 가능 불가능을 미리 셈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삶의 방식을 실험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속에서 실험하는 것을 거룩한 실험이라고 말한다. 실험한다는 말은 웨이커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나에게서는 웨이커들의 겸손한 도전정신이 느껴진다. 웨이커들의 평화운동은 거룩한 실험의 하나이다. 웨이커들은 평화신

앙을 실천하는 일을 테스트imoni (Peace Testimony)라고 부른다. 평화 운동을 진리라고 믿고 이것을 현실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에 기반한 평화증언이라는 의미이다.

퀘이커 350년 역사를 돌아보면, 퀘이커들은 전쟁을 거부하고 대안 복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2차 세계전쟁 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퀘이커들은 주로 영국이 중주국으로써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나 20세기 이후 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해 온 것은 미국 퀘이커들이었다.

21세기, 영국 퀘이커 연례모임(British Quaker Yearly Meeting)은 비폭력, 군축, 평화교류, 평화교육, 해외평화활동과 UN활동과 같은 평화 활동을 영국 퀘이커들의 주요 실천 목표로 삼고 있다. 영국 퀘이커 본부는 퀘이커 평화활동가들을 무기무역반대 캠페인, 전쟁반대 비폭력 행동단체, 학자, 정책가, 군인, 시민들이 함께 평화정책을 모색하는 지역 평화포럼, 아프리카 콩고와 부룬디 국경 마을 평화단체, 부룬디 평화와 발전을 위한 행동단체 등에 파견하여 훈련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퀘이커리즘의 본산지, 영국 퀘이커 연례모임은 일종의 교단 본부와 같은 곳이다. 영국 퀘이커 본부의 평화 활동 정책은 영국 퀘이커들의 활발한 평화운동을 보여준다. 평화주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의 실천은 오늘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퀘이커들의 평화의 실천은 국내 지역 사회와 해외 갈등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또 평화운동을 위해 많은 퀘이커들은 기부하는데 열심이다.

기독교의 다른 교단의 주요 관심 활동은 어떤 것인가를 비교해 보면 퀘이커들의 평화 신앙과 실천이 퀘이커리즘 안에서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영국교회는 신앙, 결혼, 세례, 장례, 기도와 예배, 교육과 사회 문제가 주요 관심 영역임을 보여준다.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교단 총회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활동을 살펴보면, 총회소개, 부서소개, 노회소개, 자료실, 커뮤니티, 온라인 서비스, 회의 보고가 주요 항목으

로 나와 있다. 활동 사업을 보기 위해 각 부서로 들어가 보면, 국내선교부의 사업으로는 교회개척훈련, 전도분야, 개척선교, 학원선교, 직장 병원의료선교, 도시산업 이주민 선교, 문화선교(스포츠, 레저, 연예, 미디어), 목회개발선교, 상담 및 영성분과, 세계선교부의 사업으로는 선교포럼, 선교행정서비스, 비전트립이 나와 있다. 교육자원부는 생명살리기 정책회의, 총회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총회교육주제, 총회창립 100주년 기념 성경표준주석 개발 편찬 사업, 총회창립 100주년 기념 백서발간을 위한 개발착수, 총회 100년사 발간을 위한 작업,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새 공과개발 작업, 교회학교 부흥 MVP 세미나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회봉사부는 특별구호사업으로 사랑으로 겨울나기, 연금 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자립대상교회 목회자특별지원, 사회봉사의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선교 현장개발 활성화, 사회복지선교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사회봉사 사회선교 훈련사업, 사회문제 대책과 조직 훈련사업으로 인권문제 대응, 교회와 사회포럼, 사회문제 대응, 독도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책, 평화문제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문제 대응 사업은 “평화선교를 위한 목회지침서 개발, 평화만들기 지도자 훈련과정을 통한 평화선교 전문사역자 양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강구를 위한 화해와 평화위원회 운영, 대내외적인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주로 교회 내부의 일에 집중되어 있지 사회와 세계 평화문제에 대한 활동은 없다. 기존의 주류 교회들의 활동과 비교를 통해 보면 케이크의 평화 실천이 질적 양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케이크들은 세계 1차 전쟁 이후 평화운동과 구호 봉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친우 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를 조직했다. AFSC는 2차 세계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이 개입한 전쟁 기간 동안 대안복무 활동 등 반전 평화운동을 활발하게 했고, 핵무기 반대 운동, 평화시기 전쟁 예방을 위한 평화운동을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전 세계 지역에서 꾸준히 전개했다.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 AFSC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 평화운동의 주요 주제는 평화건설(Peace Building), 이주민 권리(Immigrants Rights), 감옥 인권, 경제정의와 차별철폐와 같은 것이다. 평화건설의 주요 활동 내용은 평화정책 수립, 화해와 치유, 지역사회 공동체의 평화, 국제 대화와 교류활동, 평화를 위한 경제압박운동(예, 이스라엘 상품 불매 운동), 원격조종 전쟁중지 운동 등이다. AFSC는 “평화와 안전은 폭력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비폭력 정신을 기초로 한 사회경제적 체제를 만드는 중장기적 실천 방향을 잡고 일한다.

9·11 테러사건 이후에는 미국 사회에서 이슬람 종교를 이해하고 무슬림의 인권을 보호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을 뿐 만 아니라 부시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미국 정보기관은 AFSC를 테러단체에 준하는 반국가 단체로 감시리스트에 올렸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사례는 미국 퀘이커들의 평화운동이 국가의 이익을 넘어 인류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지난 1980년 초부터 AFSC는 북한에 식량과 생필품 보내기 등 구호 봉사 지원 활동에 나섰고, 현재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산물 증산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전 세계 분쟁과 재난이 일어난 곳에는 퀘이커들이 있다. 이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퀘이커들은 지역 사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촌 마을 곳곳의 고난과 분쟁의 현장에서 생명 존중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 퀘이커들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평화구호활동을 할 때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조용하게, 도움 받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한다. 한국의 평화사상가 함석헌은 퀘이커리즘을 평화의 종교라고 믿고 존경했다. 퀘이커 평화운동은 앞으로도 이 세상에 분쟁과 고난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퀘이커들은 자신이 믿는 진리를 실천한다는 실천 신앙의 바탕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農**